

선한 목자 예수님께 드리는 9 일 기도

2021 년 4 월 16 일부터 24 일까지

“관계의 친교 안에서”

도입



선한 목자 예수님께 드리는 9 일기도 안에서 총회 목표의 두 번째 부분을 숙고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지막 두 문헌, 즉 형제애와 사회적 우정에 대한 “모든 형제들에게”와 올 해에 바쳐진 성 요셉의 모습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으로 비추고자 합니다. 확실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명을 “부드러움과, 순명과 환대 속에서” 살아가신, 성 요셉의 모범을 따라서, 목자의 마음을 단련하셨습니다. 빠스토렐레로써,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를 따라, 우리도 이 위대한 성인을 배우는 은총을 청합시다. “성요셉께 우리의 회개를 위해 은총들에 대한 은총을 청합시다”.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일치시키며, 동등하게 만드는 인류의 형제애의 이름으로, 대화의 문화를 가야 할 길로, 상호협력을 행동강령으로, 상호이해를 방식과 기준으로 채택하기로 합시다” (모든 형제들에게 285).

“달린 세상의 그림자를 밝히는” 선한 목자

진리

하느님 말씀

📖 루카 2,1-7: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2

교황님 말씀

- 모든형제들에게 55: 저는 모든 이를 새로운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삶의 구체적 상황과 역사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린 실재에 대하여 말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갈증, 갈망, 충만에 대한 열망, 성취된 삶에 대한 열망에 관하여 말합니다. 또한 위대한 것을 이루려는 열망, 우리 마음을 채워 진선미, 정의, 사랑처럼 위대한 것들을 향하여 정신을 들어 높이는 것을 이루려는 열망에 대하여 말합니다...희망은 담대합니다.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품위 있게 해 주는 위대한 이상에 열려 있도록, 희망은 시야를 제한하는 개인의 안위, 사소한 안전이나 보상을 넘어 바라보는 법을 압니다.” 희망을 품고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 아버지의 마음으로 5: 그 아기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말씀하시게 될 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 이방인들, 수감자들, 아픈 이들이 요셉이 끊임없이 보호하여야 하는 아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셉 성인은 불행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추방당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죽어가는 이들의 수호자로 불립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우리의 형제자매인 가장 작은 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 성인에게서 그 같은 보호와 책임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성사와 자애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실재들 하나하나가 언제나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창립자 말씀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필요성과 그분의 은총, 그분의 기도가 필요함을 더 크게 느끼고, 포기하지 말고(루카 18,1), 놔두지 마십시오. (AAP 1961, 340)

길

- 개인적, 형제적, 사목적 차원에서(공동체, 지역, 지방, 국가),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 느끼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비추시고 이미 역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 안에서, 어떻게 그분의 활동에 협력하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생명

- 강론대나 혹은 독서대 주위로 모여면서 시편 8 편을 노래합니다.

4 월 17 일, 토요일

“길 위의 이방인들에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선한 목자

진리

하느님 말씀

📖 루카 10,29b-37: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교황님 말씀

- 모든 형제들에게 84: 끝으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인 다음과 같은 복음 구절도 기억합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마태 25,35).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이들의 비극을 당신의 일로 여기시는 열린 마음을 지니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로마 12,15).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출 때에 출생과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고 다른 이들을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에 들어서면 마침내 다른 이들이 ‘자신의 혈육’(이사 58,7 참조)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 아버지의 마음으로 4: 요셉의 수용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예외 없이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대하며, 약한 이들에게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려고 권유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약한 것을 선택하셨고(1 코린 1,27 참조),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시편 68(67),6)이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20) 저는, 예수님께서서 돌아온

탕자와 자비로운 아버지(루카 15,11-32 참조) 비유에 관한 영감을 요셉 성인에게서 받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창립자 말씀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도직 안에서, 여러분의 직무에 해당하는 일들 안에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이들, 함께 살고 있는 이들, 수도회 회원들, 같은 집에 사는 이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결점만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선도 보도록 하십시오. 때때로 비밀스런 *passioncella* 를 마음의 주름 안에 감추고, 나쁘게 해석하며, 마리아의 마음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수녀가 가질 수 없는 질투심, 경향,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AAP 1958, 130)

길

- 오늘 날 이웃은 누구입니까?
- 우리의 여정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날 때 형제적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구체적인 예들).

생명

- ❖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적으로 오늘 날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부드러운 몸짓을 보입시다(전화, 메시지, 경청, 만일 멀리 있다면 연락처에서 그들의 프로필이나 사진을 찾고, 예수님께 단순한 기도를 올립시다“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4 월 18 일, 일요일

“우리가 열린 세상을 상상하고 이룩하게 하는” 선한 목자

진리

하느님 말씀

📖 골로 3,12-15: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황님 말씀

- 모든 형제들에게 87.94 (...) “사랑할 구체적인 얼굴들이 없다면 아무도 삶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족하며 섬처럼 살아가려는 곳에는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들 안에서는 죽음이 지배합니다”(...)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그의 삶을 위한 최선을 추구해 나가게 합니다. 이처럼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길러 갈 때에야

우리는 아무도 배척하지 않는 사회적 우애와 모든 이에게 열린 형제애를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 아버지의 마음으로 2: 예수님께서서는 요셉에게서 하느님의 온유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없이 여기듯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없이 여기신다”[시편 103(102),13]. 요셉이 시편 기도를 바치는 동안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온유한 사랑의 하느님 11)이시라는 말이 회당에 울려 퍼지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랑의 하느님께서서는 모두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 위에 미치네”[시편 145(144),9].

창립자 말씀

오늘 저녁에는 선함에 대해 숙고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하지 않고, “선한 목자는 양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생명을 바친다”라고 하십니다(요한 10,11 참조).

선함이란 무엇입니까? 선함이란 애덕의 꽃입니다. 형제들에게 가져가는 그 사랑의 외적 표현이며, 영혼과 육신을 위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물품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PrP VII 1955, pp. 297-299)

길

- “열린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지금, 여기서 살수 있습니까?(형제적 관계와 사목적 직무 안에서).
- 공동체와 사도직 차원에서, 매일 우리 자신 안에서 어떤 태도를 길러 나갈 수 있습니까?

생명

- ☪ 주님 앞에 수도회의 회원들의 사진과 이름과 전 세계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놓읍시다. 각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상징과 감사의 행위로 두 팔을 뻗읍시다.

4 월 19 일, 월요일

“수용하는 무상성으로 초대하는” 선한 목자

진리

하느님 말씀

- 📖 마태 10,5.8: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교황님 말씀

- 모든 형제들에게 140: 형제적 무상성이 부재한 삶은 우리가 준 것과 그 대가로 돌려받는 것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숨 가쁜 상거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느님께서서는 불충실한 이들에게조차 무상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마태 5,45).

-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문): 주목받지 않고 날마다 신중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살아가는 요셉 안에서, 우리 저마다는 곤경에 처해 있을 때의 중재자, 지원자, 안내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 성인은 숨겨져 있거나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이 구원 역사에서 비할 데가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의 공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창립자 말씀

감사하십시오. 아름다운 성소에 감사하십시오. 수도회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지난 연피정 때부터 오늘까지 한 해를 잘 지낸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도직 안에서 잘 행한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니다. 감사하십시오. 암브로시오 성인이 말하기를 첫 번째 과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가 “감사하십시오(골로 3,15),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AAP 1962, 490)

생명

- 무엇이 나에게 감사를 불러 일으킵니까? 공동체로서 함께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 나와 우리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서 사랑의 무상성이 가장 먼저 입니까?

생명

☪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돌보아 주었으며, 조연해 주었고, 무상성으로 동반해 주고, 부드러움과 인내심과 이해심을 갖고 가르쳐 주었고, 우리를 교육했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준 이들의 얼굴들을 관상합시다. 그들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르고 감사를 드립니다!

4 월 20 일, 화요일

“노동의 존엄성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

진리

하느님 말씀

📖 마태 20,1-7: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발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적당한 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교황님 말씀

- 모든 형제들에게 107.108: 모든 인간은 품위 있는 삶과 온전한 발전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러한 기본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회는 이러한 원칙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합니다. 그러한 사회들은, 기회는 모든 이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것은 개인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시각에서는 “뒤쳐진 이들이나 힘없는 이들, 능력이 모자란 이들을 돕고자 투자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 아버지의 마음으로 6:요셉 성인은 목수로 정직하게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노동의 결실로서 양식을 얻는다는 것의 가치, 고귀함, 기쁨을 요셉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위기는,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발견하라는 요청일 수 있습니다.

창립자 말씀

한 우리 안에 한 양떼가 되게 하는 것이 빠스토렐레의 직무입니다. 공로의 소중함을 안다면 경주에 나설 것입니다. 공로는 일에서 조금씩 얻으며, 성체로부터 불어납니다. 가장 큰 죄는 노동에 있지 않습니다. 교황님은 노동에 대사를 주실 것입니다. 노동은 하느님의 큰 선물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지는 유일한 보물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고, 때로는 일을 바꿈으로써 쉬십시오. (PrP III, p. 155)

VIA

- 노동의 정신과 매일 노동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 존엄하고, 협력적이며, 연대하는 노동 안에서, 가난한 이들(가정 혹은 개인)을 포함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생명

☪ 우리 본당과 지역 혹은 나라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4 월 21 일 수요일

선한 목자께서는 “만남의 문화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다”

진리

하느님의 말씀

📖 코린 12,4-11: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교사의 말씀

- 모든 형제들 222.223: (...)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친절을 베푸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을 지닌 사람은 다른 이들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은 특히 다른 이들이 여러 문제와 시급한 필요와 고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때에 그들이 삶을 더 감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줍니다.
- 아버지의 마음으로 4: 요셉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간 영적 길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입니다. (...) 수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굴의 용기로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에 모순과 좌절과 낙담이 존재할지라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창립자의 말씀

여러분의 사명은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시오.” 우리는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기, 그들을 차별없이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을 넓게 해 달라고 주님께 청합니다. (So, 64-67 쪽)

길

- 우리는 만남의 문화는 인내와 차이성의 수용과 받아들임이 요구되는 총체적인 과정 (신체적·정신·심리적·영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까?
-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우리의 계획들을 살펴 만남의 문화를 가치를 드높이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주일에 얼마나 시간을 내는지 봅시다.
 -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쉼의 시간
 - 무상의 시간(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함께 하는 오락 활동. 예를 들어 예술활동, 소풍/산책, 영화관람, 우정을 위한 비 형식적인 대화)

생명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저희에게 드러내십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저희가 서로 다름에도 서로를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용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 각자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빛이 되도록
한 몸으로 일치되어 사는 은총을 주소서.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께서는 “화해의 여정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진리

하느님의 말씀

📖 에페 4,29-32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9

교서의 말씀

- 모든 형제들 225: 세계 곳곳에서, 상처들의 치유로 이끄는 평화의 길들이 필요합니다. 독창적이고 담대하게 치유와 새로운 만남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평화의 장인들이 필요합니다.
- 아버지의 마음으로 4: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력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그에 따르는 실망감의 인질로 남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립자의 말씀

(...) 예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의 성소에 충실할 수 있는 은총과 힘을 얻을 것입니다. (...) 선한 목자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를 선한 빠스뜨렐레로서 닮고 따른다면 “하루 빨리 한 목자 아래 한 양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뜻에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So, 78-79)

길

- ❖ 개인 관상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고 용서받은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서했던 사람들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더욱 진심으로 화해를 하여 우리가 복음적으로 성장하게 해주고 깊은 겸손과 부드러움과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해 주었던 순간들을 식별할 은총을 청하십시오.

생명

예수님의 사제적 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 17,1-8

모든 공동체는 화해의 기쁨을 거행하기 위하여 상징을 선택한다.

4 월 23 일 금요일

선한목자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의 자유를 주신다.”

진리

하느님의 말씀

📖 요한 8,31-32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교서의 말씀

- 모든 형제들 272: 우리 믿는 이들은 모든 이의 아버지이신 분께 열려있지 않으면 형제애를 호소할 공고하고 확실한 명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버지의 마음으로 2: 하느님의 진리는 우리를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환대하고 감싸안아 주며 격려해 주고 용서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루카 15,11-32 참조).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루카 15,24)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처럼, 그 진리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존엄성을 찾아주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위한 잔치를 마련해 줍니다.

창립자의 말씀

정신의 자유, 사도직 에서 자유, 영적 모성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요구, 자유의 요구입니다. 정신의 자유를 누리고 영적 모성에 도달하며 사도직에서 충만하게 자유롭기 위하여 항상 하느님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성화, 이탈, 정신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할 때 “네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고 행하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말했습니다. 사랑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 (AAP 1963, 13)

길

- 우리는 나와 다른 이에게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으로 개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세, 구체적인 행위, 공감하고 적극적인 경청)

- 우리 사이에서 신뢰하고 평온하며 기쁘고 자유로우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현존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생명

선한목자예수님께 드리는 코론치나 2 번을 기도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인류를 찾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흩어진 양들을 불러 모아 길러줄 목자를 일으키신다는 약속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앞장서 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에 그분을 따라갑니다.

당신은 계명과 권고를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하신
영원한 빵으로 양육됩니다.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들을 당신의 길로 다시 불러들이시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시며,
연약한 사람들을 굳세게 해 주소서.

모든 사람이 우리 영혼의 목자요 보호자이신 당신을 따르게 해주소서.

당신만이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니 어디든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4 월 24 일 토요일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세계 성소를 위한 기도의 날

마지막 9 일 기도는 제 58 차 세계 성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위하여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메시지에 따라 성소를 위하여 한시간의 성체 조배를 통하여 교회와 일치합니다.

- ✓ 성가를 부르며 성체를 현시한다.
- ✓ 주님께 흠숭을 드리는 자유 기도 혹은 공동에서 선택한 다른 기도를 드린다.
- ✓ 성령 성가로 성령을 청하고 경청의 원의와 자세로 침묵한다.

GESÙ VERITÀ

📖 요한 10,11-18: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삷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그는 삷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 ✓ 제 58 차 세계 성소를 위한 기도의 날에 교황 프란체스코의 메시지
 예수님과 교회의 수호자 성 요셉을 성소자들의 보호자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섬기는 것에서 바로 보호하는 돌봄이 나옵니다. 가족을 위하여 서두르고 헌신하는 것을 드러내며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마태 2,14)"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것을 맡긴 이에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바꾸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습니다. 이러한 주의 깊고 재빠른 돌봄은 성공한 성소의 표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자극을 받은 삶의 증거입니다. 고집을 부리며 우리의 야심들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의 미련에 정체되지 않고, 주님께서 교회의 중재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는 것을 돌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의 모범인지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창조력을 우리 위해 부여 주십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 성소에 관한 성가

길이신 예수

- ♣ 우리 마음에 울려 온 말씀이나 문장에 대하여 나눈다.
- ♪ 감사의 성가

진리이신 예수

- ☪ 성체이신 예수님께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는(각자의 형편대로)" 공동체적인 행위로 깊은 침묵 속에 자신을 맡기고 애원을 표현한다.
- ☪ 성공의 비결{유희거나 노래}
- ✓ 성체 감실에 모시기
- ♪ 마침성가: 시편 23

